

CONTENTS

제20권 제1호 통권 제110호
 발행일 2022년 1·2 월호 발행
 발행 · 편집인 이길용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
 주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전화 1566-2339
 팩스 1566-2032
 홈페이지 www.hansenkorea.org
 이메일 hansen@hansenkorea.org
 디자인&인쇄 씨티플랜
 격월간 비매품

한센 포커스

02 인사말

호랑이의 강인한 기운으로

04 스페셜 리포트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마을 개선대책 유관단체 회의
제1차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회의
제2차 한센인피해사건진상실무위원회 회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설맞이 이웃사랑 후원금 전달식

09 한센 리포트

총연합회 정기감사
정기이사회 서면결의
정기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국민권익위원회와 한센인 정착마을 실태조사
총연합회 사업 소개
한센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한센 탐방

20 지부는 지금

전남지부 사랑의 성품 기부 받아

22 유관단체 동정

한국IDEA협회
한국한센복지협회

24 한센역사속인물

폴 브랜드

한센 공감

30 소통하는 한센

김해시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한센병 바로 알기
2022년 세계 한센병의 날
해록예술회 전라남도지사 표창장 받아

38 함께하는 한센

추억의 불로초
구름되어
우리의 인생길
생활 속 놀이교육 소감문

한센 이모저모

46 정보 알리미

자세가 기분을 바꾼다
코로나19 확진 시 나는 어디서 치료를 받나요?
2022년 변화되는 보건복지 · 질병정책
건강한 잇몸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음식 6가지
쉽고 깨끗하게! '청소 꿀팁'

60 배움 교실

요즘 이 책
배움교실

62 독자들의 공간

날말퀴즈
한센게시판/원고 모집





호랑이의 강인한 기운으로

사랑하는 한센 가족, 후원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호랑이는 호랑이 중에서도 강력한 리더십, 독립성, 도전 정신, 강인함, 열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조들은 검은 호랑이를 매우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의 암흑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올해는 강인한 호랑이 같은 힘으로 새로운 의지를 다잡아보자는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총연합회는 2년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총연합회는 한센인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한센인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올 한해도 쉽지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도 총연합회 임직원 모두가 변함없이 지켜야 할 사명 '한센인,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를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바탕으로 우리 총연합회는 지난 한 해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1월 지부장들과 함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마을 개선 종합 대책 경과를 공유하고, 이행관리 및 현안 해소를 위한 공동 협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마을 개선대책」 유관단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아울러, 한국농수산물식품 유통공사로부터 한센 가족들의 풍요롭고 따뜻한 명절을 위한 후원금을 지원받아 한센 가족에게 잘 전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센 가족, 후원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올해 중기인이 뽑은 사자성어로 중력이산(衆力移山)이 선정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힘을 합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낸 한센 가족들이 올해에는 조금씩이라도 성과를 쌓아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2022년 새해에도 총연합회 발전과 한센 가족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총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우리 한센 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협회는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업 옷을 만들고 입을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기를 늘 힘쓰며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삶의 패턴이 확연히 변하고 있는 새로운 전환기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마스크,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소통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가 집단 행사 자제를 당부함에 따라 정부대책에 부응하고 대의원 및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총연합회도 불가피하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배우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또 다른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는 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보람 있었던 일 만큼이나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지난 일 년 동안 총연합회는 한센 가족들과 하나가 되어 열심히 뛰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한센인 자조단체로 역사와 전통에 걸맞은 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임인년 한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들과 소통하는 총연합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 나가면서 우리나라 한센인을 대표하는 위상을 더욱 공공히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한센 가족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가정에도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하는 아름다운 한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한국한센총연합회 회장 이길용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마을 개선대책』유관단체 회의



지난 1월 27일(목) 정부서울청사 5층 심의실에서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마을 개선 종합대책 경과를 공유하고, 이행관리 및 현안 해소를 위한 공동 협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마을 개선대책』 유관단체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 및 지부장들을 비롯하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권익위), 한국한센복지협회 임직원이 참석했다.

회의 주요 내용은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마을 개선대책 경과 공유 및 이행방안 협의, 기타 현안 해소 및 개선대책 실현 등을 위한 주민 참여 방안 협의이다. 권익위는 2020년 10월 경주시 한센인 정착마을인 희망마을 환경·복지 개선 관련 현장조정을 계기로 지난 해 전국 66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82개 한센인 정착마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마을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20일 복지부 등 9개 관계 중앙부처, 66개 관할 지자체에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회의 현장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신인 정착마을
환경·복지 실태**

1. 석면 폐축사 방치 등 주거환경 열악
2. 열악한 복지 지원 및 생활 기반 미흡
3. 세제지원 미흡 등 경제적 자립기반 저해
4. 한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지속
5. 한신인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보상 미흡
6. 한신인 권익보호 등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제도 미흡

이번 관계 부처, 전국 지자체 등 범정부적 개선 종합대책으로는, 석면 폐축사 철거 등 환경정비 신속 추진, 정착마을 정비 시 국비 우선지원 및 확대, 위로지원금, 양로주택 보강 및 요양급여 개선, 지방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비과세), 한신인 피해자 사건 재조사 및 피해자 지원 확대, 한신인 인식개선과 차별해소 등 권익보호·강화, 한신인 권익보호·삶의 질 향상 특례제도 마련 등이다.

이길용 총연합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신인의 권익보호 및 향상을 위한 권익위의 노력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또한 이번 개선 종합대책 이행과 각 정착마을의 고충 해결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1월 27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전에 시도지부장 회의를 통해 한신인 권익보호 및 정착마을 환경·복지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동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

2022년 제1차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회의



△ 비대면 회의에 참석한 이길용 총연합회장



△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지난 2월 21일(월) 오후 1시 30분 2022년 제1차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가 비대면으로 개최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 ‘한센인 피해사건 추가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392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한센인 피해사건은 한센인이 수용시설 등에서 감금·폭행·학살, 간척사업 강제노역 등의 피해를 당한 사건을 말한다. 2008년 관련 법이 시행되고 이듬해 위원회가 출범한 후 2013년까지 4년간 한센인 피해조사가 이뤄졌다. 당시 법률 명시 3건 이외에 14개 사건이 피해사건으로, 6462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번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는 당시 조사에서 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의 추가 조사 요구로 진행됐다.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이 2012년 초기 기초생활수급자·차상

위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16년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로 확대됨에 따라, 초기 조사에서 소득을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었다.

이번 조사는 한센인의 고령화(평균 80세)를 고려해 기존 17개 사건에 한정해 신고·접수를 받았으며, 총 436건이 접수됐다. 이중 면담조사, 증빙자료 확인 등 실무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392명은 피해자로 인정됐다. 2명은 불인정, 나머지 42명은 중복신고 등으로 반려됐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올 1월분부터 소급해 매달 17만원의 위로지원금이 지원된다. 위로지원금은 처음엔 15만원이 지급됐으나, 2020년부터 17만원으로 인상됐다. 피해로 인한 치료 또는 상시 보호,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위원회 결정 후 의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2021년 제2차 한센인피해사건진상실무위원회 회의



보건복지부

(출처 : 보건복지부)

지난 12월 29일(수) 2021년 제2차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가 비대면으로 개최되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을 비롯한 우리 총연합회 우홍선 사무총장과 실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심의·결정 요청(안)’이 상정되어 논의되었다.

2021년 7월부터 진행된 한센인피해사건 추가 발굴조사에 접수된 인원은 총 436명으로 서류심사 및 대면조사를 통해 총 375명이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인정 심의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반려대상자 61명은 이미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 조사 전 취소한 사람, 한센인이 아닌 사람 등의 사유로 반려 처리

되었다. 제1차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인정 외의 사건 29명에 대해서는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및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실무위원들의 검토를 통해 확정된 심사의견서는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 상정되어 최종 결정된다. 이후 최종 결정된 피해자에게 한센인피해사건 결정통지서가 송부될 예정이며, 송부된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보건소에 위로지원금을 신청하면 22년 1월분부터 위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설맞이 이웃사랑 후원금 받아



우리 총연합회는 1월 26일(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김춘진, aT)로부터 설 명절을 앞두고 한센 가족들의 풍요롭고 따뜻한 명절을 위한 후원금을 지원받았다.

총연합회에서 진행된 후원금 전달식에는 이길용 총연합회장과 김춘진 aT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약식으로 진행됐다.

aT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인 한센 가족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후원금을 전달함으로써 한센 가족들이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고 삶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길용 총연합회장은 “지역사회 내 소외된 한센 가족을 위해 나눔에 앞장서 준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전달받은 후원금은 지역 내 한센

가족이 어려움 없이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김춘진 사장은 “aT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지역 내 한센 가족에게 긍정적인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늘 한센 가족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춘진 사장은 17대 국회의원 시절 소외계층인 한센인 인권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해 2007년 9월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후 한센인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2010년 세계한센포럼조직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17개국의 1000여 명이 참석한 국제대회를 개최하며 한센인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활동했다.

정기 감사 실시

우리 총연합회는 지난 1월 26일(수) 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정기 감사를 실시했다. 정관 감사규정에 의거해 진행된 이번 정기 감사는 김종학 감사, 선진순 감사 2인의 주재로 실시되었다. 이번 감사 방법으로 자료제출과 현장 질의 및 응답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되었으며, 감사 대상은 총무, 회계, 사업 분야 등 총연합회 업무 전반이었다.

감사 총평으로는 ▲ 국민권익위에서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마을 환경·복지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정착마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각 정부 부처에 석면 폐·축사 등 정착마을 환경 정비사업의 신속 추진을 권하는 등 한센인의 복지증진 및 각종 민원 해소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특례제도를 총연합회와 함께 개선 대책을 마련한 것은 그간 총연합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 ▲ 한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 조사를 위해 총연합회에서 보건복지부로 지속적인 민원 제기 등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한센인피해사건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 신청 한센인 대부분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그간 총연합회에서 정부 및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 낸 성과로 이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가 요구되며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 ▲ 예산 증액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율을 낮추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과 자체 일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강구 필요 등이다.

정기이사회 서면 결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업무 활동이 확산됨에 따라 우리 총연합회는 참석자들의 감염으로부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해 정기이사회를 다수 이사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진행했다. 총연합회는 회의 자료 등을 발송하고 서면결의서를 우편을 통해 접수하였으며,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식은 대면회의와 동일하게 진행했다.

상정된 이사회 안건으로는 ▲ 정착마을 추가(안) 승인 ▲ 정관 변경(안) 승인 ▲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이다.

정기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우리 총연합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정부가 집단 행사 자제를 당부함에 따라 정부 대책에 부응하고 대의원 및 직원들의 감염 예방과 안전을 위해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서면 결의로 진행했다.

상정된 대의원 총회 안건으로는 ▲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 정관변경(안) 승인 이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대의원총회 석상에서 대의원들과 함께 주요 업무 및 추진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하지만,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책에 준수하고자 서면으로 대의원총회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2021년 주요 사업 실적보고 및 회계,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문의는 언제든지 총연합회로 연락바라며, 문의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자세히 답변할 것이다"고 대의원총회 서면 결의에 대해 설명했다.

서면결의서는 대의원총회 회의 자료와 함께 동봉되어 대의원들에게 발송되었다. 대의원들은 심의결과를 서면결의서 양식에 작성 후 서명 혹은 날인하여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총연합회로 회신해주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한센인 정착마을 민원 청취



지난 2월 18일(금) 우리 총연합회는 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위원장, 권익위)와 현애마을(대표 이계호, 전남 나주시)을 찾아 한센인 정착마을 현안을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권익위는 전국 한센인 정착마을의 복지·환경문제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이 시급한 정착마을은 긴급 복지지원, 관계기관 현장 조정 등 우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회의는 한센인

정착마을(현애마을)의 현안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해소방안을 논의하여 한센인들의 권익 향상 및 문제해결을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우리 총연합회는 한센인 정착마을의 복지·환경문제 해결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권익위에 적극 협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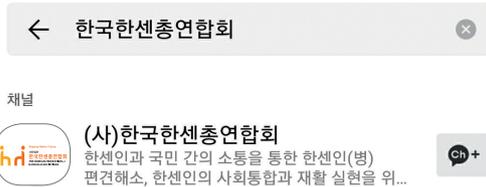
총연합회 카카오톡

+ 채널 추가하는 방법

1.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한다.



2. 한국한센총연합회를 검색한다.



3. 채널 추가하고 다양한 소식 받아보기



(사)한국한센총연합회

친구 81 명

한센인과 국민 간의 소통을 통한 한센인(병) 편견해소, 한센인의 사회통합과 재활 실현을 위한 단체입니다.



채팅하기



채널 추가

소식

정보

☎ 상담원 채팅

월,화,수,목,금 09:00~18:00

ⓘ 기관/단체 > 복지

🌐 <http://www.hansenkore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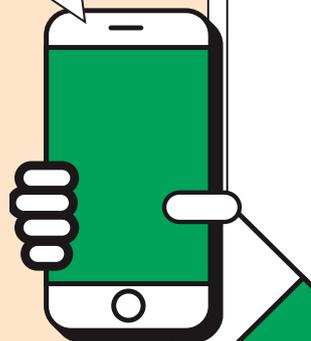
☎ 02-1566-2339

✉ hansen@hansenkorea.org

연락처 시대에도
당신의 온기로 채워지는
따뜻한 세상



QR 코드를 스캔하면
카카오톡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서와~ **hri** 한국한센총연합회는 처음이지?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한센총연합회의 사업을 소개합니다.

한센인 평생교육사업



● 배움행복마을교육

학습 소외계층인 한센인에게 인간의 기본권인 '교육권'의 기회를 제공, 자존감 향상과 자아실현 달성을 통한 평생교육 실현 및 삶의 질 향상



● 치매예방교육

지리적 소외성과 장애로 인한 신체적 불편함으로 다양한 교육이 어려운 정착 마을에 직접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치매 발생률을 경감시키고 노년의 건강 및 행복 추구, 복지와 인권 향상

한센인 평생교육사업



● **보건요원교육**

정착마을 내 한센인을 돌볼 수 있는 보건요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건강증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착마을 한센인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축산경영교육**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정착마을 내 축산업에 종사하는 한센인에게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가축방역 전문가의 교육을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 지식 등의 교육을 통해 가축방역 의식 고취의 기회를 제공하고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고자 함

한센인 복지사업



● 찾아가는 문화복지

장애 및 고령의 한센인이 거주하는 정착마을의 경우 도시 외각에 위치한 특성상 문화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 한센인에게 다양한 공연을 선사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 한센인 합동결혼식

경제적 곤경 및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한센인에게 결혼식을 통해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한센인 복지사업



● 우리마을 행복사진관

건강과 장수 기원의 의미를 담아 촬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거의 모진 차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을 억척스럽게 일궈 낸 주인공이지만 그 과정에서 노후에 대한 대비 없이 노년을 맞이하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수 사진을 준비하지 못한 한센인들에게 노후 준비 기회 제공



● 한센인 독거노인 케어

고령 한센인의 복지욕구를 구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안부 전화 사업을 통해 직접 그들의 생활 현장에 들어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소외와 고립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정서적 돌봄 행위 및 숨겨진 문제를 발굴하는 탐색적 역할과 위기관리 및 위기 대처를 위한 예방적 조치

대국민 홍보사업

ON AIR



- 「한센」 발간 및 다양한 홍보 매체 운영



「한센」 발간 및 다양한 홍보 매체(홈페이지 및 SNS, 메신저 등)를 통해 한센인(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인의 인식 개선 및 관심을 유도

한센인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한국한센총연합회 | 총연합회 소개 | 한센병 가이드 | 사업안내 | 알인광장 | 나눔광장 | 정보광장

한센인에게 사랑과 희망을!

우편지 배달부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신 후원금은 어려운 한센인을 위한 인형장학 및 복지지원 사업에 소중한 사랑입니다.

시간뉴스

「한센인 권리 보호 및 정착촌 개선 대책, 유관단체 회의」

공지사항	총연합회 뉴스	+
• 2021년 우리마을 행복서진원(영수진 원명) ...	2021. 11. 15	
• 2021년 한센인 합동평론식 신청자 모집 안내	2021. 10. 07	
•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	2021. 10. 05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신고에 관한 공고	2021. 07. 01	
• 코로나19 백신 접종 알아두기	2021. 06. 23	

Instagram | Twitter | Facebook | YouTube

(사)한국한센총연합회

☆한센사랑 ✓친구

클릭하여 메모를 입력하세요.

2021 정박마을 축산경영교육

우리 총연합회는 정박마을 축산 농가의 전염병 예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를 담은 '2021년 정박마을 축산경영 교육 책자 및 동영상'을 제작해 축산 농가에 배포 및 SNS(유튜브)에 업로드 했습니다.

축산인이라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구상해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가족방역전문가의 교육을 통해 가족전염병 예방 등 축산 경영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아래 「자세히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 (출처 : KBS 조우종의 FM 대행진 홈페이지)

● **한센인(병) 편견 해소 라디오 CM 송출**

대국민에게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CM을 송출함으로써 한센인(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편견 및 차별을 방지하고 한센인(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일반국민의 몰이해 해소



● **정착마을 실태조사**

한센인 생활환경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통해 한센인의 일반 현황, 생활환경 현황, 복지욕구 현황, 기타건의사항 등을 파악하고, 향후 사업 방향성 설정 및 필요 법안 제안 등을 위한 통계 자료로 활용



● **전국 한센인의 날, 전국 한센인 대회**

자조모임 활동을 통하여 한센인 및 국가한센사업 홍보증진의 기회, 한센인 간 친목 교류 및 화합의 장 기회를 제공하고 한센인의 삶과 역사 및 인간 존엄성 가치를 재조명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1. 일본 한센 가족들에 대한 보상 판결

- 일본 정부는 과거 일제강점기하 소록도에 강제격리·노동을 당한 한센피해자들에게 일본 한센 보상법을 제정하여 보상을 실시한 바 있음
- 이후 한센인 가족들이 일본 구마모토 지방법원에 제기한 보상청구소송 또한 2019. 6. 28. 승소 판결하였고, 이에 일본 정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 취지에 따라 2019. 11. 15. 한센병원환자가족보상법을 제정하여 한센인 가족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 위 한센가족보상법은 격리 정책으로 인한 한센 가족 피해를 인정하고 사죄·반성을 표하면서, 한센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고, 그 명예회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고 밝힘

2. 보상 청구의 내용

- 보상금은 친자, 배우자 180만엔, 형제자매 130만엔 등
- 청구시한은 2024. 11. 24.까지(한시법)

3. 청구자 및 원환자

- 가족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이하 청구자)은 일제강점기하(1945. 8. 15.)에 한센병이 발병된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이하 원환자)를 둔 가족
- 청구자는 1945. 8. 15. 이전 출생자로서 생존하고, 한센병 발병여부 불문
- 원환자는 1945. 8. 15. 이전 발병자로서 소록도 입소 및 사망 여부 불문
- 원환자가 일본으로부터 소록도 보상을 받은 경우도 가능
- 사실혼 배우자도 해당하나, 혼인일시는 1945. 8. 15. 이전이어야 함

4. 청구시 필요 서류 (예시)

- ① 원환자 일제하 한센병 발병사실 증명서류 : 한센등록(관리)카드, 한센사업기록표, 소록도 입소증명서, 교적부, 세례명부, 소록도 보상결정문 등
- ② 청구자가 원환자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일제 또는 해방후 구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③ 청구자가 1945. 8. 15. 이전 출생자로 생존한 사실 : 주민등록 초본
- ④ 청구자 은행계좌 사본
- ⑤ 기타 입증서류

5. 안내 및 문의

- 현재 한국 변호사들은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을 구성(단장 조영선 변호사)하여 일본 변호단과 업무협의를 하고 있음
- 2022. 1. 10. 기준 139명(1차 62명, 2차 63명, 3차 14명)을 일본에 송부하였고, 보상결정을 기다리는 중임
- 한센가족보상 청구는 원환자(한센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사회와 국가로부터 차별과 편견을 받아왔던 것에 대한 사죄이며, 보상임
- 문의사항 : 조영선 변호사, 이정일 변호사로 연락 요망

전화 : 02-3482-6195, 02-3482-8422

주소 : 우) 06541 서울시 사평대로 367 수암빌딩 3층, 법무법인 동화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

전남지부, 사랑의 성품 기부 받아



△ 설학순 도성마을 대표, 지재운 총연합회 전남지부장, 한국한센복지협회 류재선 광주·전남지부 본부장(왼쪽 세 번째부터)

우리 총연합회 산하 전남지부는 12월 3일(금) 한국한센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본부장 류재선)로부터 사랑의 성품(쌀, 휴지 등)을 기증 받았다. 이날 성품 전달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지재운 전남지부장, 류재선 본부장, 설학순 도성마을(전라남도 여수시) 대표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이 진행됐다.

지재운 전남지부장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한센 가족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오랜 기간 나눔과 기부를 통해 한센 가족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는 한국한센복지협회의 활동이 건강한 한센 가족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류재선 본부장은 "겨울 추위에 코로나19까지 더해 몸과 마음이 지친 한센 가족들에게 사랑의 성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한센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앞으로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남지부는 전달받은 성품을 전남지부 산하 정착마을에 전달하였다.

평동 평동 약 복용 시간입니다



개인별 권고 처방에 맞춘
올바르고 꾸준한 약 복용,
내 몸과의 약속입니다.



Mapping a better future...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
THE KOREAN FEDERATION of
HANSEN ASSOCIATIONS

인도 · 필리핀 한센인 및 극빈층 생필품 지원



△ 선물을 전달받은 인도IDEA미션스쿨 학부형들



△ 필리핀 갈라오칸시 탈라 한센마을 주민들

칸시 탈라 한센마을에 거주하는 한센인 190가정에는 쌀과 도시락을, 산페드로시 캄캄마을 주민 100 가정에는 쌀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 행사는 세계에서 가장 긴 코로나 펜데믹 락다운(봉쇄령)을 기록한 필리핀과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인도의 한센인들과 극빈층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치솟는 물가 때문에 인간의 가장 기본 권리인 식사를 거르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해외 한센마을 한센인들과 극빈 가정 아동들을 돕기 위해 진행되었다.

한국IDEA협회(회장 정상권, 협회)는 지난해 2021년 12월 24~29일까지 크리스마스를 맞아 인도 IDEA미션스쿨 학생들과 필리핀 한센마을 2곳 그리고 최극빈층이 거주하는 필리핀 캄캄마을 1곳에 생필품과 간식, 무료식사 등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 행사에서 협회는 2003년 인도에 건축한 IDEA 미션스쿨의 학생들에게는 평소 가정 형편이 어려워 자주 먹지 못했던 초콜릿 한통과, 크리스마스 케익, 마스크 10개를 선물했으며, 필리핀 일로일로시 웨스턴 비사야 한센요양병원 인근 마을의 한센인들과 아동 250명에게는 작은 선물과 도시락을, 갈라오



△ 필리핀 일로일로 웨스턴비사야 한센 요양병원 인근 한센마을 주민들



△ 필리핀 산페드로시 캄캄마을에 전달된 생필품

(사)한국한센복지협회

한센인 위해 따뜻한 의류 선물



한국한센복지협회(회장 김인권, 협회)가 한센인을 위한 따뜻한 연말연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협회는 2021년 12월 31일(금) 협회 연구원 병동에서 입원환자를 위한 격려품(의류·구스조끼) 증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인권 회장은 입원 환자들에게 직접 물품을 나눠주었고, 따뜻한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는 격려의 메시지도 전달했다.

협회는 2022 임인년에도 한센인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변함없이 이어나갈 방침이다.

2022년도 시무식



2022 임인년을 맞은 한국한센복지협회(회장 김인권, 협회)가 힘찬 새 도약을 시작하기 위한 2022년도 시무식을 지난 1월 7일(금) 협회 본부에서 개최했다. 이날 김인권 회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한국한센복지협회는 직면한 현안을 제대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울산·경남지부 마산 신청사의 성공, 그리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성공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폴 브랜드, 한센병 의료의 개척자



외과 의사이자 의료 선교사 폴 브랜드(Dr. Paul Brand, 1914 ~2003). 그는 인도 남서부 산악 지대에서 선교사 자녀로 태어나 그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런던에서 의학을 공부하다 만난 마가렛 베리와 결혼한 뒤 인도 벨로르로 돌아가 그곳 대학과 병원에서 본격적인 의료 활동을 했다. 특히, 한센병 환자의 망가진 손과 발을 외과 수술로 교정하는 기법을 고안하고 발 전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한센병 환자가 입는 부상이 대부분 한센병에서 비롯된 상처가 아니라 통증에 무감각한 탓에 벌어진 결과임을 알게 되었다.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한편, 그들이 세상에 나가 적응할 수 있도록 재활 공동체를 설립하여 운영했고, 얼굴에 한센병 흔적이 남아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눈썹과 코 등을 재건하는 수술을 개발해 그들의 재활 및 자활을 지원했다. 1960년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앨버트 래스커 의학상을 받았다.

선교사의 아들 폴 브랜드

폴 브랜드는 1914년 7월 17일 인도 타밀나두에서 인도 선교사였던 제시 맨 브랜드와 이블린 브랜드 부부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와 함께 산악지방 인도 타미나두의 콜리 힐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1923년 영국으로 돌아와 학업을 마쳤다. 그의 아버지는 1928년 그가 15살 되던 해 흑사병으로 돌아가셨다. 그 후 그의 어머니 이블린은 90이 넘는 나이에 인도 산골짜기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다. 폴 브랜드는 2차 대전 도중 의학대학에서 의술을 배웠고 런던 빌츠에서 응급실 의사로 자격을 취득했다. 그의 아내인 마가렛 역시 의사였으며, 의학대학에서 만나 1943년 5월 영국 임마누엘 교회에서 결혼하였고 마침내 부모님의 영향으로 그는 인도 벨로아로 의료 선교를 떠났다.



▲ 폴과 그의 아내 마가렛

◀ 폴의 유년시절
(왼쪽부터 어머니 이블린, 여동생 코니, 폴, 아버지 제시)

인도에서의 생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학업으로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인도서 생활했다. 그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었고 1946년 아내 마가렛 여사와 함께 인도로 돌아와 벨로르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했다. 그가 치료받지 못한 한센인의 끔찍함과 한센병과 연관된 오해를 알게 된 것이 그곳이었다. 그가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할 때 그는 한센인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 도움

역사 속 인물

을 주려고 노력했는데 그들에 얼굴에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본 폴 브랜드는 동료에게 "무엇 때문에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것인지?"라고 물어보자, 동료는 "당신이 그들을 감동시켰네, 수년간 누구도 그런 적이 없는데... 고통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네"라고 답하며, 한센인들에 대한 관심과 헌신의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 인도에서의 폴

한센병에 대한 오랜 역사적 편견 해소

그는 어린 시절부터 손에 유독 관심이 많았던 터라 한센인들의 부자연스러운 손에 연민을 느꼈으며, 한센인들에 대한 치료 방법에 몰두하게 되었다. 모두 외면한 한센인들을 위한 재활 공동체를 설립해 운영하기도 했다. 그의 연구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한센병에 대한 획기적인 치료 방법을 알아내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 그들의 손과 발을 외과적 수술로 교정 또는

재건하는 수술법을 고안 발전시켰고 눈썹과 코를 복원하는 수술을 실시하기도 했다. 인도 기독교대학에서 18년 동안 3,000여 건의 외과수술을 시행하기도 했다.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한센병에 대한 그의 관심을 통해 이제 한센인들이 더 이상 숨죽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입증하게 되었다. 그의 헌신과 열정 덕분에 한센병에 대한 오랜 역사적 편견이 해소되기 시작했다.



▲ 한센인과 함께하고 있는 폴

1966년 19년간의 인도에서의 활동을 끝내고 그는 루이지애나 카빌의 한센병 센터의 주치의 자리를 제의받아 미국으로 갔다. 연구시설과 인력이 잘 갖추어진 그곳에서 20년간 일하며 손과 발의 합병증 예방 관리법에 대해 연구했다. 그가 연구한 발바닥 궤양의 예방 관리법은 현재도 당뇨병과 같은 유사 질병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폴 브랜드는 또한 한센병의 합병증으로 종종 발생하는 손가락 재건 치료 기술로 유명한데 현재에도 다양한 유형의 손 관련 질병 치료에 그가 개발한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1950년 한 선교사 여성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폴 브랜드는 새 삶을 위한 센터인 '벨로르'를 설립했다. 벨로르는 한센병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재활센터다. 벨로르 센터는 기독교의학대학과 병원 캠퍼스 지역에 있었다. 이는 한센병의 오명을 불식시키는 것을 도왔고 특히 의학전문가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했다. 한센인의 자존감 회복을 돕고 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것이 그의 소중한 목표였다.



당신의 작은 사랑과 관심은
한센인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입니다

(사)한국한센총연합회는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행동수칙



30초이상
손바닥, 손톱밑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착용



기침할땐
옷소매로 가린 후
기침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정일룡 _군포시청

2013년 제4회 한센인 편견해소 공모전
포스터 부분 입선



오해와 편견으로
어둡고 길었던
터널의 끝에서
자유와 평등
치유와 희망을
꿈꿉니다

김해시,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1. 11. 22 ~ 12. 21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되었다. 정례회 기간 동안 박은희 김해시의원이 「김해시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원안가결 되었다. 이 조례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김해시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인 피해자의 복지증진 및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개선에 기여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한센인 정착마을에 거주하는 한센인 및 가족 또는 유족이며, 보조금 지원 사업은 한센인의 날 행사,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개선사업이다.

조례 대표 발의한 박은희 시의원은 김해시 주민뿐만 아니라 13년간 한센인 정착마을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현장 곳곳을 뛰어 다니며

지역 및 한센 현안의 해결 방안의 기틀을 마련해왔다. 2006년 1월 박은희 시의원이 김해생명전화 가정봉사원파견센터(현. 김해생명의전화노인통합지원센터) 근무시절, 첫 인연이 닿은 한센인 정착마을은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양지마을이었다. 양지마을 한센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가사업을 펼치면서 양지마을과 첫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그 후, 2007년 9월 김해시자원봉사센터 근무시절, '2007 자원봉사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양지마을과 맺어 온 인연은 계속 이어져 민·관 협력으로 성당 공소를 리모델링하여 이·미용실, 물리치료실, 이비인후과 진료실 설치 등 '양지해피하우스'를 개소하여 수년간 찾아가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고립된 한센인 마을 주민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사회 편견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박은희 시의원은 ‘제18회 한센인의 날’ 행사에서 이길용 총연합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더불어, 본지와와의 인터뷰를 진행해 한센인에 대한 사랑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박은희 시의원 인터뷰는 본지 통권 103호(2020년 11-12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박은희 김해시의원

김해시 조례 제 호

김해시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김해시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인 피해자의 복지증진 및 한센인 정착촌 환경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센인”이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한센인 피해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가족”이란 한센인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4. “유족”이란 한센인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5. “보조금”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한센인 정착촌 지원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한센인 정착촌에 거주하는 한센인 및 가족 또는 유족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사업)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센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센인의 날 행사
2. 한센인 정착촌 환경개선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하려는 자는 매 사업추진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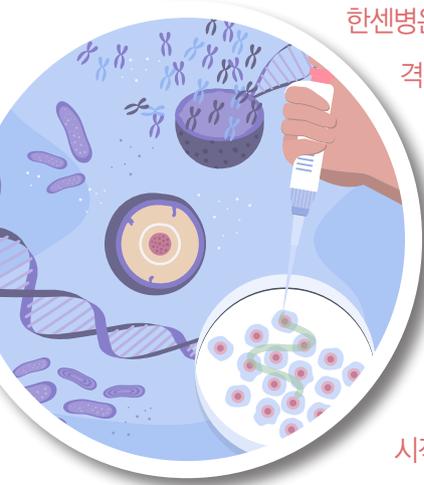
제6조(보조사업 정산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센병 바로 알기



한센병은 기원전 600년경 그 기록을 찾을 수 있으나, 13세기 중세시대에 크게 창궐한 질병으로 격리수용, 복장, 행동, 규율 등 사회적 통제개입이 이루어진 최초의 질병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만큼 오랜 시간동안 우리 인간과 함께해 온 질병이다. 그 당시만 해도 질병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단지 유전병 정도로만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 질환의 원인은 노르웨이 태생의 한센(Gerhard Henrik Aramuer Hansen)에 의해 밝혀지게 된다. 1866년 한센은 Royal Frederic's University(현재의 오슬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 근무하던 중 1986년 베르겐으로 귀향하여 한센병이 특정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Leprosy was a specific disease with a specific cause)이라는 연구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1879년 환우들의 피부조직 샘플을 알버트 나이서에게 시험 의뢰하여 한센간균(Mycobacterium leprae)이 한센병을 유발시키는 원인 병원체임을 밝혀낸다.

한센병은 병원체에 감염된 후 2~20년의 긴 잠복기(incubation period) 거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센간균(나균)은 보통 치료받지 않은 나중형 환자(untreated lepromatous patients)의 비점액(nasal mucosa)에서 분리되며, 체외환경에서 약45일까지 생존할 수 있다.

전파양식은 사람이 의미있는 유일한 병원소이고, 환자의 비점액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피부나, 가까운 접촉을 통해 호흡기계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센병의 진단은 환자의 피부병변, 운동신경 검사, 감각신경검사, 신경축진 등의 이학적 검

사와 한센균을 관찰하는 피부도말검사, 피부조직 병리검사로 기본적인 진단을 한다. 그밖에 레프로민 검사(lepromin test), 항PGL-1 항체검사, 분자생물학적 검사 등의 다양한 방법이 보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센병은 천형의 병이 아니라 약물로 치료가 되는 감염병에 불과하다. 병에 걸렸더라도 2주에서 2개월 정도 약을 먹으면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지 않으며, 병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개 5년에서 20년 정도 꾸준히 약을 먹으면 완치가 된다.

한센병의 치료는 한센병 자체에 대한 치료와 한센병에 의한 후유증에 대한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소록도병원 입원자들은 한센병의 후유증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요즘은 의학의 발달로 한센병에 의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표적인 치료약으로는 답손, 크로파지민, 리팜피신 등이 있는데, 한 가지 약보다는 몇 가지 약을 복합해서 쓰는 복합화학요법(MDT)을 쓰고 있다.

한센병은 인간이 체험한 최초의 질병으로서, 지구상에 이 질병이 나타난 것은 인류의 등장과 같을 것이고 그 시작 지점은 이집트일 것이라는데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한센병은 인간이 문자를 사용하여 기록을 시작한 때부터 등장하는데 B.C. 2400년경 이집트의 파피루스 문서에 이미 한센병이 기록되어 있고, 페르시아에서는 B.C. 6세기경에 알려졌다. 인도에서는 의서(醫書) 「차라카 · 산 히타」에, 중국에서는 「논어」 등에 기록되어 있으며, A.D. 1~2세기의 그리스 · 로마의 의사들에 의해서도 기록되어 있다.

특히 구약성서는 「출애굽기」에 모세가 한센병에 이환되었음을 밝히고, 「레위기」 13~14장에서는 한센병에 대한 증상과 대응 방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유사(三國遺事)를 비롯하여 고려사(高麗史), 삼화자향약(三和子鄉藥), 향약구급방(鄉藥救急方) 등에 한센병으로 보이는 병명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들 모두가 현대적 의미의 한센병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 조선실록(朝鮮實錄), 동의보감(東醫寶鑑), 광제비급(廣濟秘訣), 제중신편(濟衆新編), 의종손익(醫宗損益), 혼의징(痕醫徵) 등에 현대적 의미의 한센병이 나타난다.

특히 한센병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병명이 나오는 최초의 의서(醫書)는 1453년 조선 세종 때의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으로서, 제3권에 「대풍나(大風癩)」라는 병명과 함께 ‘감각의 이상, 피부의 의주감(蟻走感), 반문(斑紋)’ 등의 초기증상을 언급하고, ‘병의 발전과 더불어 후목(朽木)과 같이 지각의 완전둔마(完全鈍麻)에 이르러 오랜 시일이 지나면 피부근절(皮膚筋節)의 괴산(壞散), 수지족지(手趾足趾)의 탈락, 시력장애를 나타낸다’고 하는 정확한 임상 증상과 함께, 고삼원(苦蔘元) 등을 이용한 치료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참고 자료 : 국가 한센사업 관리정책(이은규 보건학 박사)
참고 사이트 : 국립소록도병원(www.sorokdo.go.kr)





2022년 세계 한센병의 날



△ 라울 폴레로

2022년 1월 30일은 ‘세계 한센병의 날’ 이었다.

‘세계 한센병의 날’은 1954년 프랑스의 세계적인 한센사업가이자 자선사업가인 라울 폴레로(Raoul Follereau)가 편견이 심한 한센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한센병은 쉽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만든 날이다.

‘세계 한센병의 날’은 1954년 프랑스의 세계적인 한센사업가이자 자선사업가인 라울 폴레로(Raoul Follereau)가 편견이 심한 한센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한센병은 쉽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만든 날이다.

라울 폴레로는 1903년 8월 17일에 프랑스 중부 느베르에서 태어나 1977년 75세의 생애를 마칠때까지 한센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13세때 아버지를 여의고 가족을 돕기 위해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사제와 함께 공부를 하는 주경야독을 통해, 소르본대학교에서 철학과 법학 전공했다. 그가 한센인과 처음 만난 것이 1936년에 아르헨티나 신문사의 요청으로 북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지역을 방문하며 프랑스 출신 성자 샤를 드 푸코(Charles de Foucauld, 1858~1916)의 발자취를 취재하던 도중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한센병과 관련한 라울의 활동은 2차 세계대전 중 노트르담선교수녀회가 최초의 한센인 마을을 만드는 것을 도우면서 시작되었다.

한센인 마을 설립 추진 중 보여준 그의 호소력 강한 글과 행동은 한센병에 대한 사회의 태도에 충격을 줄 정도로 강한 것이었다. 설립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

로 전문 의료진과 접촉하게 되었고 그의 관심은 점차 세계 한센병의 상황으로 넓어지게 되었다. 그에게 한센병은 사회의 부정과 불평등의 궁극적인 상징이었다. 그는 1946년에는 한센인 후원단체를 조직했고, 후에 자신의 이름을 딴 “라울폴레로재단(Fondation Raoul Follereau)”이 되었다. 1947년에는 하루동안 이기주의에 대항하는 파업을 하자는 운동을 했고, 1949년에는 『원자 폭탄 혹은 자비(Atomic Bomb or Charity)』를 15개국으로 출판하여 “서로 사랑해라 아니면 멸망한다(Love one another or perish)”, “한센병과 싸우자!(Fight the Leprosy)”, “자선이 세상을 구한다!(Charity will save the World!)”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의 활동은 단순히 강연에 그치지 않고 세계의 권력자들에게도 거침없이 호소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졌다. 1954년에는 아이젠 하워 대통령과 소련 마렌코프 서기장에게, 1959년에는 다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후루시 초프 서기장에게 전 세계의 한센병자를 치료하고 한센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투기를 한 대씩 제공해달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직접적인 응답은 없었지만 각지에서 한센병 퇴치를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는 사건이었다. 1961년에는 그의 인도의 활동에 영감을 얻은 AIFO가 설립되어 한센인의 인

당선작

제69회 세계 한센병의 날 포스터 · 표어 당선작



(자료제공 : 한국한센복지협회)

권과 특별한 가치에 대한 존중 및 이에 대한 사회 확산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그가 한센인을 위해 한 많은 일들은 다방면에 걸쳐 있지만 그중에서도 유엔탄원서사건, 세계 한센병의 날 제정, 국제 연대의 구축은 현재 전 세계 한센인의 처우 개선에 큰 역할을 한 상징적 업적이다.

한센병은 매우 역사가 깊은 질병으로 과거에는 한센병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 한센인들을 차가운 편견과 차별의 시선으로 바라 보았다. 한센병으로 인해 병흔과 장애를 가진 한센인들도 모두 한센병이 완치된 사람들로써 전염성이 완전히 소실되었으며,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전국에 한센병력을 지닌 한센인들은 약 8,574여명, 평균 80세 이상(2021년 12월 말 기준)인 고령의 노인들이다. 차별과 편견의 시선을 피해 평생을 살아온 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갈 때이다. 차별과 편견을 넘어 한센인과 함께 하나 되는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

과 참 사랑이 이제는 노인이 되어버린 한센인들에게 더 없는 위안과 삶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매년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한센 유관단체에서는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한센병의 날 기념, 표어 및 포스터 공모 등 우리는 한센인에 대한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편견 해소와 한센인을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한국에서 유병자는 많이 줄어 들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한센병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있어, '세계 한센병의 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한센병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자 함께 노력하고 한센인을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건강한 사회, 공감하는 사회를 만드는 노력이 지속되길 바라본다.

해록예술회 전라남도지사 표창장 받아

소록도 해록예술회(회장 김기춘)가 평소 도정 발전에 애써 왔을 뿐만 아니라 남다른 열정과 헌신적인 활동으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해록예술회는 2021년 5월 31일(월)부터 6월 13일(일)까지 전남도청 1층 운선도홀에서 '아름다운 동행'이란 주제로 작품 전시회를 개최해 한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슬픔을 대중들에게 알린 바 있다.

한편, 해록예술회는 소록도 한센인 가운데 예술에 관심 있는 16명의 회원이 모여 시(詩), 서(書), 화(畵) 등 예술을 통해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6에 만든 소록도 최초 예술단체다.

한센병에 대한 무지로 차별받아 편견과 슬픔으로 얼룩졌던 역사를 가진 아름다운 섬 소록도에서 투병 의지와 예술에 대한 열정을 가진 주민이 모여 조직된 해록예술회는 꾸준한 창작 활동을 펼쳐 회원전과 특별전, 초청전, 교류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아름다운 동행' 전시회에 참가한 해록예술회 회원들과 작품 ▶



한센인에게 사랑과 희망을...

한국한센총연합회의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후원자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신
사랑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한센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부금 지정 단체인
한국한센총연합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 ♣ 후원방법 : 계좌 송금 및 물품 기부를 위한 문의 또는 홈페이지 접수
- ♣ 후원기간 : 상시
- ♣ 후원계좌 : 국민은행 433401-01-330682 (사)한국한센총연합회

Q. 후원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A. Tel . 02-1566-2339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후원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A. www.hansenkorea.org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Q. 카카오톡으로도 문의 가능한가요?

A.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 후 채팅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 한국한센총연합회)

추억의 불로초

박우택 서울·중부지부장

세월 속에 인생은 늙고
추억은 젊어간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그 추억을 함께 할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젊은 날에 우정도
순결한 첫사랑의 추억도
그립다 보고 싶다
지금은 어디에
얼마나 늙었을까
춡고 어두운 내리막길
인생의 겨울은 오는데
추억은 어이 만고에 푸르른가
오늘도 추억 여행을 떠난다
아마도 너 쫓아가다가 망신당할까 하노라

—— 작품 해설 : 어느새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필자(박우택 지부장)는 찬란한 빛 같은 젊은 날의 사랑, 우정 등의 추억에 대한 그리움과 시간의 흐름에 대한 아쉬움을 작품에 담아냈다.

구름되어

신재문 영락마을 대표

푸른 하늘 흰 구름 되어
내 고향에 이르면
어릴 때 자란 곳
오래도록 보고 싶네

평생 이루지 못한
고향이기에
창공에서 바라보며
그리워하네

옛길 따라다녔던 길
친구와 놀던 곳
세대가 바뀌더니
지역도 변하였네

차별로 쫓겨난 몸이라지만
영원히 살고픈 고향이기에
바람아 불지 마라
네가 불면 내가 간다

— 작품 해설 : 필자(신재문 대표)는 어릴 적 친구들과 뛰놀던 아련한 추억들은 되새기며 고향에 대한 진한 그리움과 동경을 작품에 담아냈다.

우리의 인생(人生)길

김종윤 (익산마을)

2022년 임인년 호랑이해가 밝았다. 웃고 오는 인생이나? 울고 떠난 나그네냐? 금으로도 살 수 없는 인생, 저마다 아픈 사연을 가슴에 묻고 산다. 우지마라. 우지마라. 달려라. 외길 인생이다. 인생의 굴곡은 누구나 걸어간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길에다 비교한다. 한 번 들어서면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다. 가다가 보면 예기치 않았던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고 순풍에 돛을 단 듯 순조로운 길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인생이라는 길에는 동반자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이정표가 없다. 오로지 자기 혼자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다. 인생길은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가야만 하는 길이다. 중도에 포기할 수도 없다. 험준한 고개가 있으면 힘들이지 않고 내려갈 수 있는 길도 있다. 힘이 든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길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 그러다보면 어느 순간 어려움도 모두 인생의 한 부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인생길이다. 프랑스 로망롤랑이 하는 말이다. '인생은 왕복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출발하

면 다시는 돌아 올 수 없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마치 언제라도 쉽게 돌아 올 듯이 가볍게 가고 있다. 지혜로운 자의 길은 마음 안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길은 마음 밖에 있다. 아무리 길이 많아도 종착지는 하나다. 인생이라는 그 끝을 향해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즐겁게 인생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하늘에는 비행기가 날아가는 항로가 있고, 바다에는 배들이 항해하는 망망한 해로가 있으며, 지상에는 열차가 달리는 철로가 있고, 자동차가 달리는 고속도로가 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가정에는 부모들이 가는 부모의 길이 있고, 자녀들이 가는 자녀의 길도 있다. 또한 학교에는 스승들이 가는 사도의 길이 있으며, 학생들이 가는 생도의 길도 있다. 인생의 가는 길이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하다. 여행을 하다가 길을 모르면 물어보면 되지만 우리의 인생길은 누구에게 물어볼까? 눈이 내리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간다.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같이 가보자. 불행 앞에서 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불행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돼라.

우리에게는 불행 속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할 힘이 있다. 가다가 산을 만나면 길을 내어 가고, 가다가 강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가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잔잔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공을 만들 수 없다.

폭풍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거칠 때 목적지에 도착하는 사공이 진짜 유능한 뱃사공이다. 살면서 누구나 흔들릴 때가 있다. 그러나 언제나 자기가 정한 길을 가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다.

미국 인텔 본사 입구에는 ‘미친 사람들만 살아 남는다.’라고 쓰여 있다. 세상은 자기 일에 미친 사람들이 살아남는 곳이다. 오직 한 길을 가는 사람들 언제나 노력하고 열정을 쏟아 붓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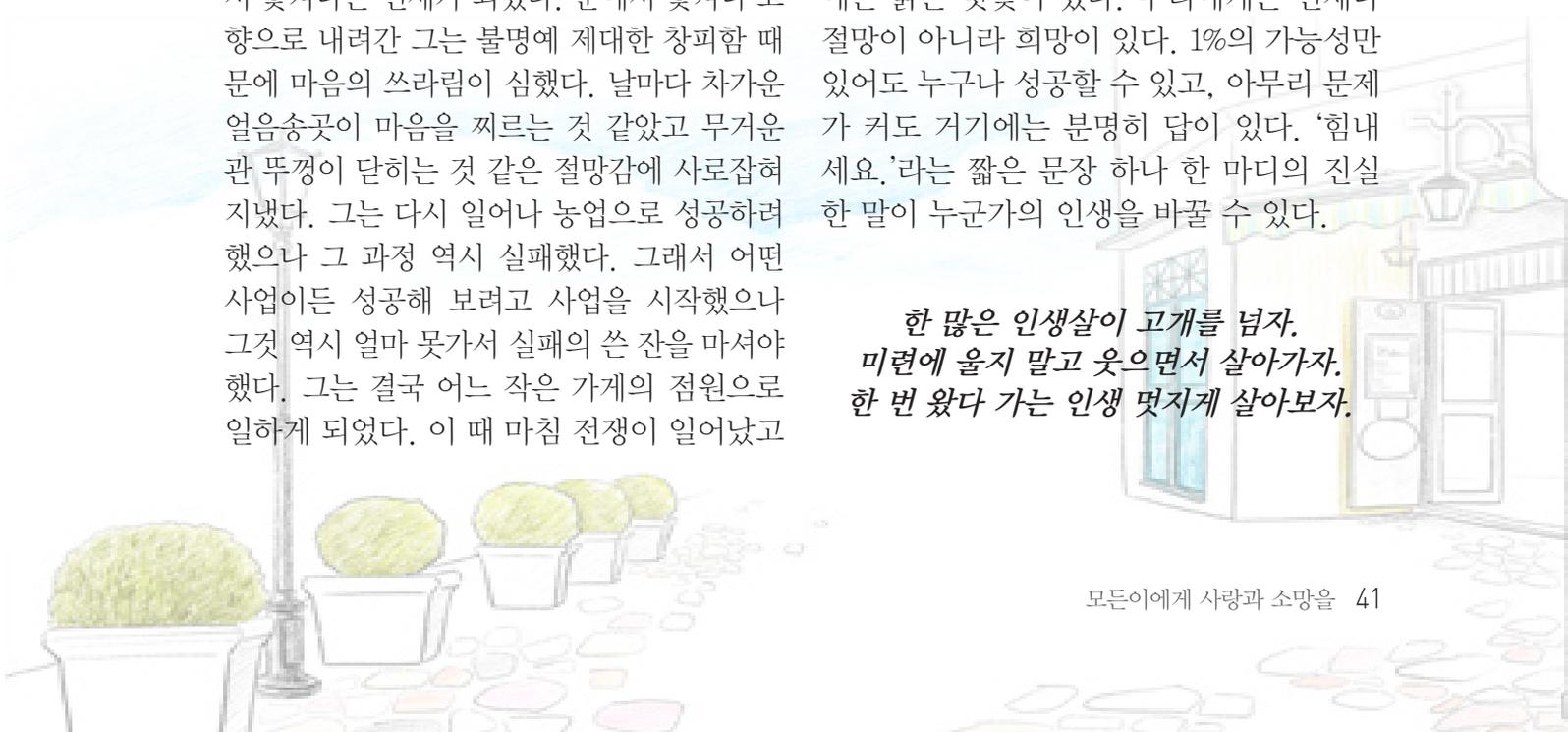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한다. 한 번이라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실패를 했을 때 어떤 자세로 실패를 받아들이고 다루는가 하는 과정이다. 실패를 소중한 자산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다만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다음 고개로 넘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어느 청년이 미국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를 당당히 졸업하고 장교로서 멕시코 전투에 나갔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품행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군에서 쫓겨나고 향으로 내려간 그는 불명예 제대한 창피함 때문에 마음의 쓰라림이 심했다. 날마다 차가운 얼음송곳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고 무거운 관 뚜껑이 닫히는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지냈다. 그는 다시 일어나 농업으로 성공하려 했으나 그 과정 역시 실패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성공해 보려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그것 역시 얼마 못가서 실패의 쓴 잔을 마셔야 했다. 그는 결국 어느 작은 가게의 점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이 때 마침 전쟁이 일어났고

청년은 군에 지원했다. 청년은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려했지만 그의 경력을 보고 그를 대위로 발탁했다. 청년은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전쟁에 참여해서 최선을 다했다. 얼마 후에 그는 소령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곧 대령으로 진급하였다. 나중에는 링컨 대통령 밑에서 북군의 사령관으로 지내면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주역이 되었다. 그는 계속 진급하여 국방장관이 되었고 결국에는 미국의 제18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가 바로 올리시스 그랜트 장군이다. 그는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훌륭한 인격자로 정평이 났다. 한 때 술주정뱅이로 장교 자격이 없다고 쫓겨난 그가 성실한 인격을 갖춘 존경받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

성공은 실수가 쌓이고 도전이 모이면 이루어지고 위대함은 고통을 먹고 자란다. 행복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찾아온다. 천둥과 번개가 친 후에는 무섭게 비가 오고, 비가 온 후에는 가장 맑고 밝은 날이 되어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있다. 아무리 터널이 어둡고 길더라도 끝은 반드시 있고 그 끝에는 밝은 햇빛이 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아무리 문제가 커도 거기에는 분명히 답이 있다. ‘힘내세요.’라는 짧은 문장 하나 한 마디의 진실한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한 많은 인생살이 고개를 넘자.
미련에 울지 말고 웃으면서 나아가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





이상호 강사 (뽕놀이협동조합 대표)

생활 속
놀이 교육 소감문

지난 2021년 10월 27일부터 12월 23일까지 성심마을(경북 상주시, 대표 김창일)에서 진행한 배움행복마을교육 커리큘럼 중 '생활 속 놀이 교육'을 담당한 이상호 강사의 교육 진행 소감문이다.

어르신들께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것으로 놀이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어떤 놀이가 이런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기획서를 작성할 때부터 고민이 되었다. 어렵사리 기획서를 작성했는데 첫 번째 놀이가 칠교였다. 칠교를 선택한 이유는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놀이일 뿐 아니라 혼자 심심풀이로 즐길 수 있는 놀이이기 때문이었다.

칠교 워크북을 나눠드리고 색종이로 칠교를 접는 방법을 가르쳐드렸다. 대부분 잘 따라 하시는데 한 분이 어려워하셨다. 그 분은 손 사용이 불편하여 정확하게 접고 자르기가 안되었다. 그래서 접고 자르는 부분을 대신해 드려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첫 번째는 7개 조각이 모두 제시된 것에 자른 칠교 조각을 붙이는 것이라 어려움 없이 해내셨다. 색종이로 칠교를 만들고 붙이는데 열중하는 모습은 마치 아이들 모습과 같았다. 결과물이 나오는 것에 만족해하시는 것 같았다.

이후 6개 조각에서 5개, 4개, 3개, 2개, 1개로 제시된 것이 줄어들자 점차 어려움을 느끼셨지만, 서서히 칠교의 재미에 빠져드는 것 같았다. 다른 놀이를 진행하면서 잘하고 계시는지 점검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분이 틈틈이 칠교를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잠이 안 올 때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어떤 땐 안 맞춰져서 애를 먹다가 나중에 다시 하면 맞았을 때 기분이 좋더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80쪽에 이르는 칠교 워크북을 모두 완성하신 분이 늘어났고 나중에는 다 했더니 심심하다고 다른 과제를 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작은 그림자로 된 칠교를 스케치북에 붙이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렸다. 설마 그렇게 까지 하리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마지막 수업을 하는 날 한 분이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스케치북을 보여주셨다.

스케치북에는 칠교와 함께 주변을 장식하는 나비, 산, 꽃 등을 예쁘게 오려 붙인 칠교 그림이 가득 들어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칠교를 만들어 붙이고 꾸미는 과정에서 느꼈을 즐거움과 만족감이 전해져 마음이 찡했다. 여러 사람에게 보여드리면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 드렸다.

놀이가 행해지는 조건은 남는 시간을 알차고 즐겁게 보내기 위함이다. 어르신들께 심심함, 무료함은 견디기 힘든 것 중 하나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 속의 놀이는 좋은 처방이 될 것이다.

칠교 워크북을 하거나 스케치북에 칠교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무료함을 달래고 즐거움과 보

람을 느낄 수 있는 매개를 제공하였다는 생각에 작은 보람을 느꼈다. 아울러 칠교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기에 앞으로도 계속 칠교를 통해 무료함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생활 속 놀이 교육 과정에서 함께 했던 여러 놀이들은 모두 1회적으로 끝나는 체험이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되풀이해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이다. 비록 종류는 많지 않지만,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함께 했던 놀이들이 어르신들의 무료함을 덜어 삶의 활력을 제공하는 매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칠교놀이 교육 중인 교육생들



△ 교육 중인 이상호 강사

정착마을을 걷다 천성마을



1966년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 714번지에
한센인(6세대)이 모여 현역군인의 지원으로
생활터전을 마련하여 살아오다
1990년대부터 정착마을에 공장을 건축하여
약280개의 공장들이 입주하면서
유양공단으로 발전하였다.
현재는 황무석 대표가 마을을 맡고 있으며,
40여 가구가 거주 중이다.

면역저하자/요양병원·시설 추가 4차 접종 안내문



면역저하자 추가접종

- 접종 대상**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중 3차접종 완료자
- 접종 간격**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 가능
* 개인 사유(국외 출국, 입원·치료 등) 발생 시,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 가능
- 접종 일정** **사전예약·당일접종** 2월 14일~ **예약접종** 2월 28일~
- 접종 방법** 4차접종 대상 여부 등 의사 소견 확인 후, 당일접종 또는 사전예약
 - 당일접종** ①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
② 의료기관 예비명단(유선 확인) 등록
 - 사전예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 3차접종 시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 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을 지참하여 접종 기관에서 접종 가능

요양병원·시설 추가접종

- 접종 대상** 18세 이상의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접종 완료자
- 접종 간격**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 가능
* 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 가능
- 접종 일정** 3월 첫째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
- 방역상 필요(집단감염 발생 우려 등) 시 접종간격(3차접종 완료 후 3개월)을 고려하여 2월 14일(월)부터 접종 가능
- 접종 방법**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 의사)

[별첨] 면역저하자의 범위

- 중앙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HIV 감염 환자(현재 CD4+ T 세포수 200/uL 미만)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부스터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자세가 기분을 바꾼다

경희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 김윤나 교수

앉은 자세, 걸음걸이는 우리 몸의 건강과 습관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다. 기분에 따라 자세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 자세에 따라 기분도 바뀔 수 있다.



비뚤어진 체형, 자세를 바로잡으면 우리 몸의 순환을 정상화할 수 있다. 자세는 장기화되면 체형으로 굳는다. 자세와 체형 교정이 이뤄지면 경직된 목이나 어깨로 발생하는 편두통과 같은 질환이 사라지고, 긴장된 근육이 풀리면서 스트레스도 줄고 의욕도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스트레스성 두통과 소화불량에 시달리던 환자도 체형 교정 후에 해소되는 경우가 있다. 근육에 가해진 피로도가 낮아지고 내장기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잘못된 자세 때문에 근육이 뭉치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에 영향을 끼쳐 집중력과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체형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를 동반한다

체형의 변화는 근육의 잘못된 이완과 단축(짧아짐)에 의해 나타난다. 온종일 스마트폰과 핸드폰을 잡고 살다 보면 목이 앞으로 빠지면서 어깨 쪽 근육은 이완되고, 앞쪽 근육은 단축된다. 하이힐을 신고 온종일 서 있는 사람은 골반이 앞으로 빠지면서 배를 앞으로 내미는 자세로 변형돼, 허리 통증이 생기고 복근이 이완된다.

체형의 변화는 단순히 몸의 변화에만 국한하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동반한다. 한의학은 몸과 마음을 분리할 수 없다는 ‘심신의학적인 관점’에서 환자를 바라본다. 구부정한 체형은 마

음을 우울하게하고, 우울한 마음은 단 음식을 습관처럼 먹게 만든다. 이렇게 늘어난 체중은 다시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 **자신감 있고 활기차게**

‘하이 파워 포즈 (High Power Poses)’

자세가 기분을 바꿀 수 있다는 연구는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척추를 곧게 펴거나 몸을 여는 자세가 긍정적인 감정을 늘린다는 많은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그 효과에 대하여 호르몬과 같은 생리학적 지표나 행동 결정 측면에서 논란이 있어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나, 척추를 구부려 움츠리는 자세나 몸을 닫는 자세가 기분이나 자신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그 반대에 대한 보고가 많이 발표되었다.

- 몸을 여는 자세(High Power Poses): 척추를 곧게 펴는 자세. 어깨 펴기, 허리를 펴기, 팔을 펼치는 자세(윈도우먼처럼 허리에 손을 올리기, 의자에 앉아 팔을 팔걸이에 올리기, 양손으로 책상을 짚고 허리를 짹 펴기, 손을 머리 뒤로 하기), 다리를 벌리는 자세

- 몸을 닫고 감싸 안는 자세(Low Power Poses): 척추를 구부정하게 구부리는 자세. 팔짱 끼는 자세, 팔로 몸을 감싸는 자세, 한손으로 뒷목을 잡는 자세, 움츠리는 자세, 등을 구부리기, 의자 끝에 앉는 자세, 다리를 모으는 자세



“똑바로 앉고 몸을 펴는 자세는 안전 신호이기 때문에 학업 등 창조적인 활동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좋은 자세는 호흡을 늦추고 불안에 대응하는 신경전달물질을 방출해 기분뿐 아니라 주의집중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똑바로 앉고 몸을 펴는 자세는 안전 신호이기 때문에 학업 등 창조적인 활동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좋은 자세는 호흡을 늦추고 불안에 대응하는 신경전달물질을 방출해 기분뿐 아니라 주의집중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TIP. 스트레스, 불안을 줄이는 자세



가슴 들어 올리기

가슴에 손을 대고, 가슴을 위로 들어 손을 앞으로 밀어보기, 어깨가 자동으로 펴진다. (단순히 어깨를 펴는 것보다 호흡이 깊어지게 하고 기혈 순환을 도와 불안을 줄일 수 있다.)



**발바닥을 바닥에 완전히 닿게 하여
땅에 닿은 느낌에 집중하기**

앉아있을 때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는다.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여서 발에 압력이 적당히 늘어나는 것을 느끼고, 그 발의 힘으로 땅을 밀어서 척추를 세운다. (불안하면 몸이 붕 뜬 느낌이 들고 자연스럽게 발꿈치가 땅에서 떨어진다. 지면에 신체가 닿은 느낌에 집중하면 뇌를 자극하여 불안이 크게 줄어든다.)

▶ **몸의 정렬을 맞추는 올바른 앉는 자세**

우울증 등 정신 질환 진단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환자의 모습을 관찰한다. 환자의 언어표현 외에 표정, 움직임, 자세 등 신체 언어에 많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우울한 환자들은 힘이 없고 축 처져 있거나,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길게 못 맞추는 경우가 많다. 불안하거나 우울해지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려 하기 때문이다. 구부정하고 움츠린 자세는 우리 몸이 위협 신호로 받아들여 효율적으로 에너지가 사용되는 것을 방해한다. 같은 원리로 똑바로 앉고 몸을 펴는 자세는 안전 신호이기 때문에 학업 등 창조적인 활동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돕는다. 좋은 자세는 호흡을 늦추고 불안에 대응하는 신경전달물질을 방출해 기분뿐 아니라 주의집중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장시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구부정한 자세가 체형으로 굳는 경우가 많다. 장시간 앉아서 지내는 이들을 위해 올바른 앉는 자세 Tip을 전한다.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앉고, 허리 뒤에 수건을 대어 허리가 적당한



아치를 만들면서 허리를 등받이에 대고 단전에 힘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허벅지가 지면과 수평이 되게 하고, 양 발바닥이 땅에 닿게 한다. 몸을 펴고 몸의 정렬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 확진 시 나는 어디서 치료를 받나요?

모든 확진확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입니다.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의 대부분은 무증상·경증이며,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누어 관리됩니다.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이란, 60세 이상 또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환자입니다.

*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 심혈관질환(고혈압 등), 당뇨,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쇄성폐질환(천식 포함), 활동성 암, 과체중(체질량지수(BMI) 25kg/m² 초과), 인체면역결핍질환

* 면역저하자 : 자가면역질환자, 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제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자

집합금지

서로를 위한 자발적 집콕

만남은 잠시 뒤로! 집에 머물며 서로의 안부를 걱정해 주세요



환자가 중등증 이상의 증세가 있을 시에는 재택치료가 아닌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 받습니다. 중등증의 경우는 중등증 병상에, 중증의 경우는 중환자 치료가능 병상에 배정되어 치료 받습니다.

무증상 경증이더라도, 노숙인, 쪽방, 고시원 거주 등 주거취약계층(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정신질환, 알콜중독 제외)이나, 70세 이상 중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 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민 궁금증 4문 4답 (재택치료 – 집중관리군 편)

Q 재택치료를 받을 때 건강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24시간 상담과 진료,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부터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전화, 화상통신 등)을 받게 됩니다.

재택치료 시 안내받은 문자의 진료 지원 앱(URL 포함)을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제공되는 재택치료키트(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매일 건강 정보(체온,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혈당 등)를 입력해주세요.

*소아용 재택치료키트는 요청 시 지자체에서 지급

입력자료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서 건강 모니터링을 위해 참고하게 됩니다.

Q 재택치료 중 증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① 재택치료키트 안에 있는 약물을 복용해주세요.

② 필요 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건강모니터링을 받으실 때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세요. 센터 방문은 본인이 사전예약 후, 도

보,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를 활용하여 이동이 가능하며 이 때 KF94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재택치료 중 먹는 치료제 복용이 가능한가요?

A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의사의 판단 하에 처방이 가능합니다. 투약 대상은 60세 이상, 50대 고위험·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이며 병용 금기약물 복용자, 신장애환자, 중증간장애환자는 투여 금기 또는 감량 투여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하는 경우,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등 응급상황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지원앱 응급전화 ☎ 119 또는 보건소에서 발송한 문자에 안내된 재택치료추진단으로 연락주세요.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년 새해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질병 정책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함께 살펴볼까요?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차별적 요소 개정

● 달라지는 정책 안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부양의무자 기준의 차별적 요소가 개정됩니다.

▣ 부양의무자 산정 시 성별·결혼 여부를 반영하였던 지침을 개정하여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부모가 부양의무자일 경우, 환자의 성별·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부모’를 부양의무자로 산정합니다. 자녀가 부양의무자일 경우, 자녀의 성별·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및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산정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 정보·알림 > 고시·지침 >
2022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권고에 따른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차별적 요소 개정
주요내용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부양의무자 기준을 성별·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여 차별적 요소 해소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문의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043-719-8778)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목록 지정확대

● 달라지는 정책 안내

희귀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환자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1,086개에서 1,123개로 확대합니다.

▣ 신규지정 희귀질환 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한 의료비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지정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은 2022년 1분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보도자료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123개로 확대

●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086개→1,123개 (39개 추가, 2개 진단명* 통합) * 기존 희귀질환을 신규 희귀질환(상위개념)으로 통합 • 신규지정 희귀질환 건강보험산정특례*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혜택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0% ** 기준중위소득 120%미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시행일	2022년 1분기
문의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043-719-8771)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 **달라지는 정책 안내**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백신은 현재 유일하게 직접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통해 HPV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 등의 질병을 예방합니다.

■ 기존 만 12세 여성청소년에서 접종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을 만 13~17세 여성청소년,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개정내용은 2022년 3월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정확한 날짜는 추후 보도자료 통해 발표 예정

●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기존 만 12세만 지원중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HPV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 등의 질병 예방
주요내용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 현행 : 만 12세 여성청소년 - 개정 : 만 12~17세 여성청소년 및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시행일	2022년 3월 중(정확한 날짜는 추후 보도자료 통해 발표 예정)
문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84)

■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확대·구축**

● **달라지는 정책 안내**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확대·구축합니다.

* (기존) 4개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변경) 5개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수도권)

■ 권역내 중증감염병환자 및 분만·투석·수술을 위한 감염병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음압중환자실(6실), 음압병실(30실), 음압수술실(2실)을 포함한 독립적인 감염병병동을 공모하여 선정·지원합니다.

●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여 독립적 감염병동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규모) 36개 음압병실(일반 30개실, 중환자 6개실), 음압수술실 2개실, 외래관찰병실 2개실 등 독립적인 감염병동 지원 • (주요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검사) 신종감염병 및 중증환자, 투석·분만·수술환자 등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격리·치료 - (교육·훈련) 권역 내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 (의뢰·회송) 권역 내 감염병 환자 배정·전원
시행일	2022년 1월
문의	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 (043-719-7811)

■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추진**

● **달라지는 정책 안내**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 중심의 공정한 부과를 위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를 현행 500~1,3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담은 줄어듭니다.

■ 또한,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해 고소득·고자산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등 경제적 능력

에 근거한 형평에 맞는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소득 기준 : 연 3,400만원 이하 → 연 2,000만원 이하 등

●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소득 중심 공정한 부과 필요 ※ 2018년 7월 1단계 부과체계 시행 주요내용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공제 확대) 현행 500~1,350만원 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확대 • (자동차보험료 축소)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 부과 • (피부양자 기준 강화) 소득 3천4백만원 → 2천만원, 재산과표 5.4억원 → 3.6억원으로 기준금액을 인하여 피부양자 기준 강화 • (소득 부과기준 변경)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등 급제→정률제로 전환, 일용근로소득·연금소득 평가율 30% → 50% 인상 • (보수외소득 강화) 현행 3천4백만원 초과 시 부과하던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기준을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부과로 강화 • (지역가입자 하한보험료) 현행 월 14,380원 → 월 19,140원(現 직장 가입자 하한)
시행일	2022년 1월
문의	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 (043-719-7811)

■ 「주간 건강과 질병(PHWR)」국·영문 동시 발행을 통한 국제 정보 환류 강화 추진

● 달라지는 정책 안내

코로나19, K방역 등 공중보건 대응 경험 및 국가 통계 등에 대한 국문 학술지 발행을 국·영문으로 동시 발행하여, 국제 정보의 교류(환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양질의 정보에 대한 공유 확산을 위해 별도의 「주간 건강과 질병(PHWR)」전용 누리집을 구축

하여, 국내·외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국·영문 동시 발행 및 별도의 누리집 구축*은 2022년 7월 1일부터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 질병관리청 공용누리집(<http://www.kdca.go.kr/>)내 「주간 건강과 질병(PHWR)」 국문 정보제공은 2022.6.30.까지 한시 운영

●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K방역 등 공중보건 대응경험과 역학조사 분석연구 등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통해 국제적 위상 제고
주요내용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 공중보건 이슈, 정책 추진 등 국·영문 동시 발행 • 근거 중심의 양질의 정보 제공을 위해 동료심사제 적용 • 정보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용 누리집 구축
시행일	2022년 7월 1일
문의	질병관리청 미래질병대비과 (043-219-2950)

■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돌봄 확대

● 달라지는 정책 안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중증장애아동 양육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애인 돌봄이 한층 두터워집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의 대상자가 8천명 확대(9만 9천명→10만 7천명)되고, 최종중 장애인 돌봄을 위해 가산급여 대상(3천명 → 4천명) 및 단가도 인상(1,500원 → 2,000원/시간)됩니다.

▣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시간도 월 25시간 확대(100시간 → 125시간)되고 지원대상

도 1천명 늘어납니다.(9천명 → 1만명)

▣ 또한,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돌봄지원시간을 120시간 확대(720시간 → 840시간)하고, '22년부터는 소득기준 초과 가정도 일정 본인부담 하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 하도록 개선하는 등 대상도 4천명 확대(4천명 → 8천명)됩니다.

* ('21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100% 지원, 소득기준 초과 가정은 지원 불가 → ('22년) 소득기준 초과 가정에도 지원(정부 60%, 본인부담 40%)

●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증장애아동 양육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대상자 확대(9.9만명 → 10.7만명) 및 최중증 장애인 등의 활동지원사 매칭 지원을 위한 가산급여 확대* * 대상자(3천명 → 4천명) 확대, 시간당 단가(1,500원 → 2,000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자 (0.9만명 → 1만명) 및 지원시간 확대(100시간 → 125시간) • (중증장애아동 양육지원)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원시간 확대(720시간 → 840시간) 및 대상자 확대(4천명 → 8천명)
시행일	2022년 1월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0)

■ 자활근로 참여정원 6.6만명 운영

● 달라지는 정책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자활근로를 '21년도 추경 확대된 인원을 유지하여 6.6만명까지 제공합니다.

▣ 전년도 본예산 대비 참여인원은 8천명 증가하게

됩니다.

▣ 참여자에 대한 급여는 전년 대비 3% 인상합니다.

▣ 또한, 제주광역자활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제주도의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편성 (첨부: 202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15선)

●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p>'22년 예산안 주요 내용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참여자 8천명 추가확대(+956억 원) • (급여인상) 유형별 일 30,120~58,660원(전년대비 3% 인상) • (광역센터 신설) 제주광역자활센터* 신규 설치 * 광역 시·도의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21년 기준 17개 시도에 15개소 설치됨(제주, 세종 제외)
주요내용	<p>자활사업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대상)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활 근로 사업단에 참여 시 일자리 지원(1일 8시간, 주5일 근무 원칙, 사업단별 다름) - 집수리, 청소사업, 음식점사업,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환경정화 등 참여자의 여건 및 역량 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단에 배치 * 지자체 및 센터별 현황에 따라 참여가능 사업단은 다름 •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소득·재산 조사 후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자활근로 참여 가능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다만 지역별 자활근로 정원 등에 따라 대기 발생 가능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문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44-202-3073)



'건강한 잇몸'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음식 6가지

치아도 중요하지만 이를 보호하는 잇몸의 건강도 중요하다.

많은 현대인들이 잇몸이 부거나 피가 나는 잇몸 질환을 앓고 있다. '잇몸이 무너지면 전신이 무너진다'는 말도 있는 만큼 잇몸 질환은 염증이 혈류를 따라 치아뿐만 아니라 신체 모든 부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평소 음식 및 생활습관을 통해 잇몸 건강을 유지하는데 힘써야 한다. 잇몸 건강에 좋은 음식 몇 가지를 소개한다.



▲ 녹차

녹차 속의 폴리페놀과 타닌, 카테킨 성분은 잇몸의 충치 및 치태, 염증 등 각종 잇몸 질환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준다. 아울러 녹차는 항균 작용을 하므로 충치뿐 아니라 입 냄새 제거 효과도 있다. 단 지나친 섭취는 치아 변색을 일으킬 수 있으니 녹차를 마신 뒤에는 물로 간단히 헹궈주는 것이 좋다.



▲ 가지

가지는 지혈 효과가 있어 잇몸이 부었을 때 섭취하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가지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혈관 내 노폐물 제거와 함께 잇몸 염증 예방 및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 잇몸 건강 상태가 우려될 때는 가지로 끓인 물에 약간의 소금을 넣어 양치를 해주는 것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 셀러리

셀러리에 들어 있는 풍부한 섬유질은 치아 표면을 문질러 플라크를 제거해주고 치아를 단단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셀러리를 포함한 녹색 채소들은 타액 분비량을 늘려 충치와 잇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산을 중화시켜준다.



▲ 양파

양파의 항박테리아 성분은 충치와 잇몸병 예방에 탁월하며, 섬유질이 풍부해 플라그 제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연구에 따르면 양파는



잇몸 질환과 충치로 이어지는 4종의 박테리아 군주를 완전히 박멸한다. 양파물을 우려내 양치질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며, 다른 음식과 곁들여 먹어도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 딸기

비타민 C가 풍부한 딸기 역시 잇몸 건강에 좋은 음식이다. 비타민 C는 잇몸을 구성하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이며, 잇몸을 튼튼하게 해줘 치주염 예방 및 잇몸 출혈을 줄여준다. 아울러 딸기 섭취는 치아 표면의 치태 제거에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딸기는 항산화 작용뿐만 아니라 암세포까지 억제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시금치

시금치의 비타민A와 비타민C는 잇몸 붓기를 가라앉히고 피가 나는 증상을 막아준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 플라크 예방과 함께 치주염 발생률을 낮춰주며, 성장기 어린이들의 치아 골격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반면 당분이 많고 유착력이 강한 초콜릿·떡·밀가루 음식, 면역시스템에 교란을 줄 수 있는 술, 레몬·오렌지 등 산도가 높은 음식 그리고 흡연은 잇몸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고 치실, 치간 칫솔, 살균력있는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는 등 질환에 가장 큰 원인인 플라크 제거에 신경을 써야한다.



봄 맞이 집안 대청소 꿀팁 7가지

깨끗한 집에서 상쾌한 새해를!
묵은 때를 닦아내고 깨끗해진 집안

2021년 힘든 일,
아쉬운 일 다 털어내고
새해 가벼운 마음으로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봅니다.

● 1년 때 묵은 벽지

한 해 동안 생긴 이런저런 얼룩 새해에는 깨끗이 지우자 식빵에 치약을 얇게 묻혀서 얼룩이 묻은 벽지를 천천히, 살살 문질러 얼룩제거

● 뿌연 먼지 가득 방충망

털면 집안으로 들어올까, 닦으면 방충망에 얽힐까, 청소하기 애매했던 방충망, 방충망에 신문지를 올려놓고 분무기로 물을 뿌려 적셔 붙여 놓으면 신문에 먼지가 붙어 쉽게 청소 가능

● **거뭇거뭇 곰팡이**

보일러 구석에, 벽 모서리, 주방 등 거뭇하게 낀 곰팡이 휴지에 식초를 살짝 묻혀 곰팡이 위에 약 1시간 정도 붙여두면 곰팡이 제거 완료

● **먼지, 진드기 걱정 카펫**

과자 가루, 각질 등 오염된 카펫은 청소기로 청소하지만 내심 찝찝하긴 했는데 청소기를 돌려준 후 베이킹 소다를 뿌리고 30분 후 다시 청소기를 돌려주면 진드기 및 먼지를 확실하게 청소

● **뿌연 화장실 거울**

물 때 및 얼룩으로 뿌연 화장실 거울은 걸레에 물을 적당히 묻혀준 후 린스를 묻혀서 닦아주면 깨끗하게 닦임

● **먼지가득 창틀**

자주 닦아줬다고 생각했는데 구석구석 검은 먼지가 가득한 창틀 종이컵 2컵에 1:2로 소금과 식초를 섞어 분무기로 창틀에 뿌려준 후 약 30 분 정도 후 닦아주면 쉽게 먼지 제거 가능

● **시름 냄새 가득 주방 배수구**

주방 배수구 거름망은 자주 씻어주고 했는데 주범은 배수구 안쪽?

배수구 안쪽에 은박지를 뭉쳐서 넣어준 후 1시간 후 은박지 제거하고 베이킹소다로 닦아주면 냄새는 물론 끈적임까지 깨끗!



“쇼츠 이책”



오늘부터 다시 스무 살입니다 공부하고 도전하고 꿈꾸는 나를 만나는 시간

김미경 외 30인 지음 | 블루웨일

“언제까지 지쳐 있을 거예요, 우리 다시, 눈부신 삶을 살아요”
수백만의 삶을 일으켜 세운 150만 유튜버 김미경과
꿈과 도전으로 가슴 뛰는 인생을 되찾은 사랑들의 이야기

150만 구독 유튜버와 6만 온라인 지식 커뮤니티를 이끄는 스타강사 김미경.
그녀와 함께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성장을 꿈꾸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대한민국 최고의 동기부여 강사이자 여성 멘토 김미경. 지난 30년간 강연장에서 300만 명의 청중을 만나온 그녀가 급변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제2의 꿈과 인생을 펼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3050세대가 온라인을 통해 함께 공부하며 꿈을 키우는 온라인 지식 커뮤니티 MKYU를 꾸린 것. ‘김미경과 당신이 만들어가는 지식 커뮤니티’라는 뜻의 MKYU(MK&You University)의 줄임말)는 김미경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 간직만 하던 꿈을 이루도록 돕기 위한 첫발이었다. 벌써 6만 명 이상이 입학해서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김미경은 그들을 ‘열정대학생’이라 명명하며 꿈과 도전을 도와주고 있다. 이 책은 30명의 열정대학생들이 김미경과 함께 생생한 인생의 변화를 이뤄낸 과정을 담은 책이다. 이들은 일단 시작해보자는 김미경 멘토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100%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출발선을 떠나지 못한다는 그녀의 조언에 공감하고 과감하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각자가 안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은 물론 약해지고 안주하려는 마음을 이겨내고 끝내 ‘변화’라는 인생의 기적을 가꾸는 사람들, 인생의 두 번째 스무 살을 사는 기분으로 두 번째 ‘대학생’이 된 사람들이다. 그들이 써 내려간 ‘나’를 일으켜 세운 이야기는 그 어떤 위인의 삶보다 감동적이고 가슴 벅차다. ‘나도 했으니 당신도 할 수 있다’는 뜨거운 지지와 연대가 오롯이 느껴진다. 여전히 시작을 망설이고 있다면, 삶의 변화를 꿈꾸고 있다면 이제 용기를 내보자. 당신의 두 번째 스무 살을 응원한다.

유재욱의 5분 재활 허리·목·어깨·등·팔꿈치·손목·무릎·발·발목 통증에서 벗어나는 법

유재욱 지음 | 불도어북



〈아침마당〉 〈속풍이쇼 동치미〉 〈엄거의 제왕〉 스타닥터 유재욱 원장의
속 시원한 통증풀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통증 치료법

방송과 언론에서 검증하고 프로 운동선수와 의사들까지 인정한 유재욱 원장의 마법 같은 근본치료를 담은 책이다. TV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해 마치 마술사처럼 아픈 곳을 찾아내고, 그 자리에서 통증을 사라지게 해 감탄을 자아낸 유재욱 원장의 통증 근본치료를 집에서 직접 해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1부에서는 내게 딱 맞는 의사를 찾는 법을 알려준다. 같은 병도 환자에 따라 치료법이 다른 이유와 최신의 치료법과 의사를 찾는 법, 의사에게 내 증상을 잘 설명하는 법까지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다. 2부에서는

허리, 목, 어깨, 등, 팔꿈치, 손목, 무릎, 발, 발목까지 부위별 통증의 원인을 자세히 설명하고,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마사지, 운동법 등을 친절하게 안내한다. 3부에서는 모든 통증에 효과 있는 3대 솔루션, 근육, 자세, 걷기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과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현실적인 대응법을 안내하는 상비약 같은 책이다.

이달의 사자성어

不遠千里

불원천리

[不]아닐 불 [遠]멀 원 [千]일천 천 [里]마을 리

바로 뜻

아무리 먼 길이라도 기쁘게 여겨 달려가는 것을 이르는 한자성어.

깊은 뜻/유래

아무리 먼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간다는 뜻으로, 가까운 벗이나 친한 사람을 만나는 데에는 먼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맹자(孟子)》 〈양혜왕상(梁惠王上)〉 '하필왈리장(何必曰利章)' 첫머리에 나온다.

맹자가 양혜왕을 만났을 때, 왕이 말하였다. "노인께서 천릿길도 마다하지 않고 오셨으니, 우리 나라에 장차 이로운 일이 생기겠습니까?(不遠千里而來 亦將有以利吾國乎)" 맹자가 대답하였다. "하필이면 이로운 일을 말씀하십니까? 역시 인의(仁義)만이 있을 뿐입니다."

맹자가 천릿길도 마다하지 않고 양혜왕을 만난 것은 인의를 말하기 위한 것인데, 하필이면 이익을 말하느냐고 질책하는 대목이다. 불원천리는 위의 글 중 '불원천리이래에서 따온 것이다. 《논어(論語)》 〈학이(學而)〉편 첫머리에도 '유봉 자원방래 불역락호(有朋 自遠方來 不亦樂乎)'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나의 학문을 알아주는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와 함께 학문을 논하니, 이 또한 즐겁지 않겠느냐는 뜻이다.

불원천리 역시 《논어》의 구절처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뜻을 담고 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데, 거리가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말이다. '불원만리(不遠萬里)'라고도 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이렇게 사용하세요!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불원천리 달려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중국어

교실

건강을 위한
운동,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

야구 棒球 [bàngqiú / 뽕치요우]

테니스 网球 [wǎngqiú / 왕치요우]

탁구 乒乓球 [pīngpāngqiú / 핑팡치요우]

농구 籃球 [lánqiú / 란치요우]

수영 愚人节 [yóuyǒng / 요우용]

달리기 跑步 [pǎobù / 파오뿌]

스케이트 滑冰 [huábīng / 후아빙]

배구 排球 [páiqiú / 파이치요우]

축구 足球 [[zúqiú / 주치요우]

스키 滑雪 [huáxuě / 후아췌에]

골프 高尔夫 [gāo'ěrfū / 까오어푸]

요가 瑜伽 [yújiā / 유지아]

날 말 퀴즈

가로 힌트

	1		2	
3				
4				

-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 사업 따위를 돕기 위한 기부금.
- 편안히 보전됨. 또는 편안히 보전함. '안전 보장'을 줄여 이르는 말.
- 사람이 살지 않는 섬.

세로 힌트

- 선거에서, 어떤 직위나 신분을 얻으려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나섬. 또는 그런 사람.
-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함.
-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사람됨이 교만(驕慢)하여 남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

| 지난호 정답 |

잉	꼬	부	부	
				설
한	센	인	의	날
강		내		
		심	마	니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지난호 당첨자 도*승, 김*태

| 참여방법 |

우편, 이메일, 총연합회 카카오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 우편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아이리스빌딩 2층 (사)한국한센총연합회 한센지 담당자 앞
- ◆ 메일주소 : hansen@hansenkorea.org
- ◆ 카카오톡 : '한국한센총연합회' 로 검색 및 채널 추가 후 정답 전송
- ◆ 보내실 내용 : 성함, 주소, 휴대폰 번호, 정답(정답이 기재된 사진 또는 종이)
- ◆ 문의전화 : 02)1566-2339 (정답은 다음호에 실립니다)

| 한센 게시판 |

한센인(병) 관련 유물을 찾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운영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한센인 또는 한센병 관련 유물을 기증(서약)받고 있습니다.

-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
- 한센시설(병원) 생활용품 또는 기록
- 한센가족 후원 또는 봉사 관련 자료
- 한센가족 작품(문학, 미술, 음악, 사진 등)
- 기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한센인과 함께 만드는 종합정보소식지 '한센'

원고 모집 공고

○ 응모 대상 : 제한없음

○ 응모 기간 : 상시접수

○ 원고 내용 및 분야

- ★ 한센인 관련 미담, 에피소드, 봉사 수기
- ★ 한센인 창작 또는 한센인 소재 문학 : 시, 소설, 수필 등 제한없음
- ★ 한센인의 생활현장, 민원 등 지역 소식
- ★ 한센인 관련 정책·학술·역사 자료
- ★ 한센인 관련 다양한 분야의 칼럼
- ★ 기타 「한센」 게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원고

○ 응모 방법

- ★ 제출처 : 총연합회 한센지 담당자
- ★ 전화문의 : (02) 1566-2339
- 우편제출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 팩스제출 : (02) 1566-2032
- 이메일제출 : hansen@hansenkorea.org





hri 한국한센총연합회의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는...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한센인에게 사랑과 희망을!

후원자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신 사랑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언제나 따뜻한 사회,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사)한국한센총연합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사)한국한센총연합회 후원회장 김정남

후원계좌 국민은행 433401-01-330682 한국한센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 중앙회 및 지부 주소

중 앙 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TEL.1566-2339 FAX.1566-2032
서울·중부지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9길 10-20(방배동 202호) TEL.(02)532-6777 FAX.(02)532-9050
부 산 지 부	부산시 서구 구덕로 124번길 3 TEL.(051)245-8207 FAX.(051)245-8206
인 천 지 부	인천시 부평구 서달로 298번길 60 TEL.(032)515-5501 FAX.(032)515-5504
경 기 지 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1 402호 TEL.(031)973-5329 FAX.(031)973-3178
전 북 지 부	전북 김제시 갈공길 21 TEL.(063)542-7822 FAX.(063)545-7820
광주·전남지부	광주시 북구 버들로 23 동방빌딩 3층 TEL.(062)524-3485 FAX.(062)524-3484
대구·경북지부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4길 5 TEL.(054)971-8975 FAX.(054)977-8975
울산·경남지부	경남 함안군 군북면 방어산로 618 TEL.(055)584-4333 FAX.(055)584-4332

‘한센’ 편집 자문위원

위 원 장	우홍선(사무총장)
위 원	박영립((재)화우공익재단 이사장), 신재균(법무법인 서해 변호사), 옥춘광(작가)
기 획	석자현